

광주FC 달빛더비 무승부... 2차 챔피언스리그 진출 '1승만 더'



광주FC가 2023 '달빛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는 11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대구FC와의 K리그 1 2023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1승 1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섰던 두 팀은 마지막 대결에서도 우위를 가리지 못했다.

외국인 선수 베카가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김강산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광주는 구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날 경기에서 승점 1을 더한 광주(승점 58)는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더라도 6위 대구(승점 50)에 앞서 최소 5위를 확정했다.

이는 2020년 기록한 6위를 넘어선 광주의 최고 기록이다. 광주가 이달 25일 열리는 전북현대와 경기에서 승리하면 3위를 확보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확정된다.

선발로 그라운드에 오른 베카가 일찍부터 시동을 걸었다.

전반 4분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정호연이 오른발, 허율이 왼발로 힐패스를 연달아 선보이면서 문전 중앙에 있던 베카에게 공을 넘겼다. 베카가 오른발 터닝슈팅을 날렸고, 공이 대구 골대로 매섭게 날아갔다. 하지만 대구 골키퍼 오승훈이 몸을 날려 공

베카 선제골 못 지키고 원정경기서 대구와 1-1

광주 역대 최고 순위 확보 속

남은 2경기 중 1승 하면 3위 확보

을 막아냈다.

전반 11분에도 슈팅을 선보였던 베카가 전반 18분 골세리머니를 했다.

이강현의 패스를 받은 베카가 시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반 33분 대구가 코너킥 상황에서 광주를 위협했다. 홍철이 왼쪽에서 왼발로 띄운 공이 골대 왼쪽에서 기다리던 바셀루스의 머리로 향했다. 공이 살짝 광주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반 40분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전개된 대구의 코너킥 상황을 막지 못했다. 홍철이 다시 한번 킥으로 나서 왼발로 공을 올렸다. 문전에 있던 김강산이 뛰어올라 헤더로 광주의 골대를 갈았다.

1-1로 맞선 후반 2분 대구 바셀루스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지만 이준이 공을 킥에 안았다. 후반 7분에도 바셀루스에 시선이 쏠렸다.

왼쪽에서 바셀루스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했고, 빠르게 날아간 공이 대각선으로 비행한 뒤 광주 골대를 비켜났다.

후반 28분 광주가 다시 한번 실점 위기를 맞았다. 중원에서 공을 뺏긴 광주가 역습을 허용했다. 바셀루스가 그대로 공을 몰고 광주 골대 앞까지 전진한 뒤 골키퍼를 마주하고 왼발 슈팅을 날렸다.

이준이 왼발을 뻗어 광주 골대로 향하던 공을 쳐내면서 슈퍼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전반전 빌드업과 정에서 나온 실수를 만회했다.

이후 광주 이견희와 이순민이 슈팅을 날리면서 승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 경기는 준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갔는데 작은 실수로 경기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서 아쉽다. 나는 야망이 큰 선수들은 그만큼 야망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우리 선수들이 야망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2주 동안 전북전 대비해서 준비 잘하겠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터치 하나,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금 더 연습한 대로 경기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패배의 책임은 어차피 내가 진다"고 선수들의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1일 대구에서 열린 K리그1 2023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광주FC의 베카(왼쪽)가 대구FC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이 시민체전 탁구대회 참가 시민들과 함께 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민체전 성황리 마무리... 소통과 화합 다졌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명실상부한 시민체전 만들 것"

'제35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가 지난 11일 빛고을체육관을 비롯해 영주테니스장, 서구국민체육센터 등 3개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민스포츠연맹의 대표 단

스스포츠팀과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 공연으로 시작해, 병량운동회의 화합 경기로 장에 물계주와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동호인들은 에어로빅합창회의 주관으로 5개 구댄스경연대회를 진행했으며 탁구와 테니스 2개 종목은 해당 경기장에서 종목별 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화합 경기와 종목경기 등에서 고루 선전해 종합 3270점을 획득한 북

구가 차지했다. 서구(2587점)가 그 뒤를 이어 준우승을, 광산구, 남구, 동구가 각각 3~5위를 차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크고 작은 사고나 부상자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체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목, 종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킹' 제임스 NBA 사상 첫 실책 5000개... 득점·실책 모두 1위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리그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실책 5000개를 기록했다.

제임스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피닉스 선스와 원정 경기에서 32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팀의 122-119 승리를 이끌었으나 실책도 4개를 곁들였다.

이로써 제임스는 정규리그 통산 실책 5003개를 기록, NBA에서 가장 먼저 턴오버 5000개를 넘긴 선수가 됐다.

제임스는 이미 2021년에 종전 턴오버 1위였던 칼 말론(은퇴)의 4524개를 넘어섰고, 이번에 사상 최초의 5000 실책 고지를 밟았다.

현역 선수로는 러셀 웨스트브룩(LA 클리퍼스)이 실책 4469개로 통산 3위에 올라 있다.

실책이 많은 것이 물론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꼭 '불명예 기록'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그만큼 출전 시간이 많고, 공을 다루는 시간이 길어야 가능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리그 득점 부문에서도 올해 2월 종전

최다 득점 1위였던 카림 압둘 자바(은퇴)의 3만 8387점을 넘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022-2023시즌 정규리그 1590점을 넣은 제임스가 이번 시즌 1348점을 추가하면 사상 최초의 4만 득점 돌파가 가능하다.

경기당 실책 수는 웨스트브룩이 4.1개로 3.5개인 제임스보다 많다. 말론은 경기당 실책이 3.1개였다.

국내 프로농구 통산 최다 실책은 '국보급 센터'로 활약한 서장훈의 1620개다. 경기당 2.4개꼴이다.

서장훈 역시 제임스처럼 리그 최다 득점 부문에서도 1위(1만3231점)다. /연합뉴스



손흥민(오른쪽)과 황희찬이 11일(현지시간)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경기를 앞두고 활짝 웃으며 반가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찬·손흥민 희비... 다시 클린스만호 동료로

울버햄프턴, 토트넘에 2-1 역전승

A매치 앞두고 오늘 국가대표 소집

울 시즌 들어 처음으로 성사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코리아 더비'에서는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웃었다.

울버햄프턴은 11일(한국시간) 오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에 짜릿한 2-1 대역전승을 따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실점한 울버햄프턴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몰아치며 순식간에 승부를 뒤집어버렸다.

마테우스 쿠냐와 함께 투톱으로 선발 출격해 풀타임을 소화한 황희찬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기적적인 역전극에 고무된 홈팬들의 환호 속에서 황희찬은 동료들과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반면 패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박장대소하며 서로 손을 맞잡은 키오프 전 모습과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연합뉴스

대표팀, EPL '선배'인 박지성(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폭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와 이영표(전 토트넘) 전 강원FC 대표이사가 2006년 4월 맞붙었을 때도 이 전 대표이사의 공을 탈취한 박지성에게 웨인 루니에게 어시스트를 전달해 2-1 승리를 이끌면서 둘의 희비가 갈렸다.

당시 둘은 경기 중 손을 맞잡으며 한국 축구사에 남을 훈훈한 장면을 만들었으나, 이날 손흥민과 황희찬이 극적으로 승부가 갈린 후 따로 접촉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유효슈팅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황희찬 역시 슈팅 1회, 유효슈팅 0회 등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짜릿한 팀 승리와 함께 만승을 거뒀다.

치열한 경기를 마친 둘은 이제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서 다시 동료로 만난다.

클린스만호는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 맞대결로 2차 예선을 시작하며,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에서 중국과 원정 2차전을 벌인다. 둘을 포함한 클린스만호 23명은 13일 오후 서울 소재 호텔에서 소집해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첫 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더 히트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마블스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톡 투 미
- 3관 30일, 다이브: 100피트 추락
- 4관 더 마블스
- 5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6관 더 마블스
- 9관 소년들, 뉴 노멀
- 7관 씨네커플 소년들
- 8관 씨네커플 톡 투 미,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5